

처음 듣는 단어를 지어 적으려는 나에게 먹어보지도 않은 호박파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6살 너뿐일 것이다.

너는 "이모! 호박파이는 빛나는 주황색에 가끔은 무서울걸?"이라 말하겠고,
나는 네가 편식이 심한 걸 알고 있으니 단호하게 "아니? 호박 속살 노란색이고 퍽퍽해."라고 하겠지만,
여느 때와 같이 불현듯 멈춰 생각하게 될 것이다. '노란색 맞았나??'하면서.
그렇게 검색해 본 호박은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또 목을 매는 퍽퍽함과 삼킨 줄도 모르는 부드러움 사이에 있을 테고,
그러니 호박파이는 어떤 맛이어도 이상할 것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맛도 모르는 것을 기대하게 되겠지.

이렇게 너는 상상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선생님이다.
내가 퍽퍽한 것만으로 세상을 좁혀갈 때, 너는 가장 닮고싶은 말랑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니
역시 너는 내게 이상이고, 그 앞에서 27년의 거리만큼 세상 가장 무색한 것은 없겠지.